

[짝퉁약품판매] 가짜 비아그라, 시알리스 보관 중 적발 - 징역 10월 실형 선고: 서울북부

지방법원 2018. 5. 18. 선고 2018고단285 판결



짝퉁 Viagra, CIALIS, PRILIGY 총 9,680정을 집에 보관하다 적발된 사안에서, 상표법 위반, 약사법 위반 혐의 인정, 징역 10월 실형 선고한 사례

### 양형의 이유

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표권을 침해한 위조 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의약품의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해하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, 위조 의약품의 수량이 28,580정으로 적지 않고 그 정품가격이 약 7억 원에 이르는 점, 피고인에게 약사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,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.

첨부: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. 5. 18. 선고 2018고단285 판결

약사변호사, 면허대여, 2중개설, 민형사소송, 행정소송, 전략적총괄대응, 실무경력

---

T. 02-591-0657 E. [kkh@kasanlaw.com](mailto:kkh@kasanlaw.com) H. [www.kasanlaw.com](http://www.kasanlaw.com)